

# 국어 교사를 위한 세계문학 교육

김 미 영\*

## ■ 목 차 ■

1. 머리말
2. 국어교사가 세계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3. 세계문학 교육의 수업 사례 :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4. 맺음말을 대신하며 : 수업의 개선점

## 국문초록

최근, 대학 교양과목의 변화가 눈에 띈다. ‘교양읽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글은 ‘교양읽기의 선상에 있는 ‘고전교육’의 사례에서 세계문학 읽기의 의미와 문제점, 개선책을 밝힌 것이다.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강좌의 수업 목표는 고전읽기의 즐거움과 고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문학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다문화 시대의 타자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타자의 이해를 체득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수업은 일반식 강의와 발표식 강의로 진행하였다. 강의식 수업은 작품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작가의 전기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 비중을 두었고, 발표식 수업은 학생들의 작품 감상 능력 향상과 논의할 주제찾기에 주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생들이 발표조의 수업 방식과 내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발표 평가지’ 작성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 교육은 독서 체험의 확대이자, 타자 이해의 심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조별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발표 때 매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임하였다. 소극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감상문에서는 예리한 비판이나 작품 분석 능력을 드러내었다.

이 수업의 문제점은 첫째, 텍스트가 서구문학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세계문학을 통하여 다문화시대의 타자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다. 둘째, 세계문학을 통하여 다문화 시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셋째,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비교를 통해 한국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고전교육, 세계문학,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수업목표, 타자의 이해, 세계시민, 텍스트 선정, 발표수업

## 1. 서론

최근, 대학의 교양과목에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교양서 읽기’ 및 ‘고전 읽기’에 대한 관심이다. 이와 같은 인문학 독서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을 현재화하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삶의 양상에 놓인 현대인에게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인문학 독서’ 또는 ‘교양 읽기’의 열풍은 예외가 아니다. 기초필수와 교양과목을 주관하는 기초융합원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을 수용하여 <고전 읽기> 교양과목을 개설하였다. ‘고전읽기’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교과목만 하더라도 <하루키와 함께 읽는 고전>, <융합적 사고를 위한 인문고전 읽기>, <영미고전산책>, <영화로 읽는 고전문학>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양과목의 설강 현황은 국어교육과가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라는 ‘세계문학 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국어교육과 학생들은 문학과 매우 친숙해야 한다.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예비국어교사들은 세계문학 그 자체의 이해와 감상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이해를 위해서도 세계문학과 비교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국어교육과 학생들에게 ‘세계문학’을 읽어 볼 기회는 한국에서 대학입시를 치른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실적인 교육 여건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교육을 병행하는 커리큘럼의 확보가 어려웠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세계문학을 읽을 수 있는 교과목 설장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 글은 사범대학에서 수행한 ‘세계문학 교육’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사가 왜 세계문학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천착하면서 수업 중에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 2. 국어교사가 세계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가치, 문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추하도록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계승되고 있는 문학의 내재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세계문학의 가치와 접목되기 때문이다. 문학의 내재적 가치는 그 무엇보다 자아의 성찰과 타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인간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빌둥(Bildung)의 도정에 있는 존재이다. 이 과정에서 문학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자체가 성찰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인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공동체적 삶을 성찰한 결과물이다.<sup>1)</sup>

이처럼 성찰의 결과물을 수용한 독자 또한 문학 독서를 통해 자아 성찰과 타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을 이룬다. 나아가 이는 역사의식과 세계관 형성과도 관련된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문학 속에 담겨진 해당 시대에 대한 작가와 작품 속 화자(話者)들의 세계관과 역사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sup>2)</sup>

문학이 지닌 이러한 가치를 제도적인 교육을 통해 내면화할 경우 궁극적으로 독자들은 언어능력의 향상, 심미적 사고와 상상력의 세련, 삶의 총체적 이해와 전인적 인간 성장에 이르며 개인 독자로서도 문학 문화의 계승과 참여<sup>3)</sup>에 합류하게 된다. 이때 국어교육과 학생들은 문학의 범주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모두 아우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문학만을 집중적으로 볼 경우, 한국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세계 문학의 자장에서 ‘한국문학’의 위치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은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은 원래 괴테가 제시한 개념이다. 괴테가 처음 이 말을 언급한 것은 고전들의 목록도, 단순히 민족문학 간의 교류 때문도 아니다. 그 보다는 ‘문학자의 초국가적 사회활동을 촉구하는 것’<sup>4)</sup>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초기의 이러한 의미가 점차 정전, 고전과 동일한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괴테가 이 말을 할 당시의 유럽 정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이해상관 관계를 떠난 ‘초국가적 사회활동’을 촉구한 의미는 결국 ‘타자의 이해’를 중시하는 문학의 내재적 가치와 닿아 있다고 본다. 즉 현대의 ‘다문화 사회’, 또는 글로벌 사회로의 변화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삶과 유사한 것이다.

1) 류수열 외, 『문학교육개론Ⅱ 실제편』, 역락, 2014, 19면.

2) 류수열 외, 위의 책, 16~63면 참조함.

3)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Ⅰ 이론편』, 역락, 2014, 48~62면 참조함.

4) 조영일, 『세계문학의 구조』, 출판사B, 2011, 44면.

다문화 시대의 시민들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타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타자의 대상은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다양해졌다. 국가, 인종, 종교, 젠더 등에서 다양한 타자의 삶이 드러나는데 세계문학은 바로 이러한 타자의 삶을 미학적으로 완성시킨 작품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문학을 통하여 다문화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문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전을 떠올린다. 정전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한 문화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보존되는 텍스트들을 총칭한다. 다른 한 편으로 정전은 ‘고전(古典, classics)’이라는, 존경의 뜻을 담고 있는 용어를 대체하기도 한다.<sup>5)</sup> 그만큼 현대인에게 통용되는 정전은 문학, 철학, 과학의 고전작품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인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세계문학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세계문학은 서구중심의 고전목록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학 문화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어교사는 세계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가? 국어교사는 예로부터 문·사·철을 두루 섭렵해야만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향이 있다. 문사철에 대한 인문학적 교양은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때, 문학 영역은 ‘세계문학’에 대한 이해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글로벌화된 현대는 문학교육의 대상을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으로 구분하기보다 폭넓게 읽고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 작품의 균형이 문학교육의 목표에도 부응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학교육의 목표를 보면 문학의 대상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으로 구분하지 않을 때 더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문학교육의 목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

5)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4, 18면.

고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나. 문학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심미적 안목을 높인다.

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학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sup>6)</sup>

문학교육의 목표는 지향점이 점층적으로 변화였다. 문학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로부터 언어에 대한 통찰과 문학적 미를 향유할 줄 아는 능력, 나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능력 함양,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 등으로 목표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과의 비교, 세계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문학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사는 ‘세계 문학’의 일반적인 정의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서구 중심의 정전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제3세계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에서 존중받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문화 시대의 특성을 드러내는 ‘세계’의 다양한 문학들을 수용하면서 세계시민의 자질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6)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2, 134면.

### 3. 세계문학 교육의 수업 사례 :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 3.1. 수업목표와 작품 선정의 기준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강의의 주요활동은 ‘세계문학’을 정밀하게 읽는 것이다. 세계문학 또는 고전작품의 독서는 단순히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행위를 넘어선다. 이는 현재와 과거,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다. 이를 통해 문학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타자의 이해를 체득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사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오늘날은 자아의 성찰과 함께 타자의 이해와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중요한 시대로서, 문학 작품을 통한 간접 경험의 확대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 수업의 목표는 앞서 밝힌 문학교육의 목표와 소설교육의 목표<sup>7)</sup>를 전제하여 설정하였다.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안다.
- 고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문학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한다.

수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작품 선정이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텍스트는 몇 권이 적당한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많은 작품을 읽을 경우 학생들이 매주 읽는

7) 소설교육의 목표는 많은 이론가들이 제시하였으나 그중에 『소설교육론』(평민사, 1993, 쪽)에서 제시되어 있는 우한용 교수의 목표를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삶에 대한 심화된 체험이 목표화되어야 한다. 2)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형성되는 현실 초극의 힘이 소설교육의 목표가 된다. 3) 소설의 텍스트상호성을 소설교육 운영상의 목표로 설정함직하다. 4) 소설의 재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화해야 한다. 5) 민족어의 감수성을 계발하고,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고, 민족어의 사용 능력을 신장해주는 목표를 상정할 수 있다.”

행위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작품의 이해는 등한시할 수 있다는 조언을 참조하였다.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좋은 ‘소설교육’이라는 말이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서너 개의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이 수업 외에 <현대소설론>과 <문학비평론> 시간에 매주 제출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실, 세계문학은 <현대소설론>, <문학비평론> 시간에도 자주 언급하는 텍스트이다. 소설이론 자체가 서구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작품을 예로 들 경우 외국소설이 합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정 텍스트는 모두 6편으로 결정되었다.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카뮈의 『페스트』, 샬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을 선정하였다.

작품 선정의 기준은 수업목표의 실행가능성과 독자(학습자)들이 예비 ‘국어교사’라는 점이였다. 즉 이 6편의 세계문학을 읽으면서 고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고전으로서의 문학적 품격을 지님으로써 고전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작품이 우선시되었다. 또한, 다양한 환경 속에 설정된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독자와 달리 ‘국어교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작품이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교사의 사명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인성교육의 제재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 학생의 입장과 유관성을 지닌 작품을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신한 문학적 기법이나 형식미에 대한 배려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의 새로운 기법이나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형식 원리는 학생들이 고전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폭풍의 언덕』과 같은 경우, 이 작품의 이중 화자 설정이 작품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학 읽기의 첫 작품은 전략상, 『폭풍의 언덕』으로 배정하였다. 학생들에게 고전읽기의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첫 수업으로 진행하자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그러한 주제는 ‘사랑’이 효과적이다. 그로테스크한 작중인물의 열정적인 사랑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사랑’의 주제에 이어진 주차별 제재는 인간의 욕망, 성장의 의미, 인간애, 자연의 숭고함, 순결한 영혼 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으로 배정하였다.

### 3.2. 수업 방식 및 내용

본 강좌는 기초필수이기 때문에 2학년 전원이 들어야 한다. 강의 방식은 일반식 강의와 발표식 강의를 격주로 진행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필자가 먼저 작품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작가의 전기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강의식 수업 시간에는 해당 작품의 구체적인 문학적 특성은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파악해야 할 주요 부분이다. 대신에, 세계 문학의 발표 시기나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한국 문학, 한국 사회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학과의 관련을 강조하였다.

각 작품의 두 번째 시간은 학생들의 발표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발표 수업은 2시간으로서 1시간은 PPT를 활용한 발표를 하였고, 나머지 1시간은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발표자가 마련한 토론이나 논의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는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조별 발표는 조별 구성 후, 작품을 선정하여 모든 조원들이 정독을 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조원들은 책을 읽고, 소설분석을 하되, 강의 주제로 채택된 핵심어를 근간으로 하여 분석을 하고 조원끼리 토론을 한 후, 발표하는 것이다. 선정한 작품이 국어교사에게, 또는 국어교육에 필요한 이유를

논의하도록 지도하였다.

발표조가 발표를 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발표 평가지’의 평가항목에 맞추어 피드백 내용을 작성한다. 평가항목은 발표 내용의 독창성, 발표구성의 논리성, 작품 이해도, 조원의 협동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매우 성실하게 문장식으로 작성하였다. 수업 중에 이를 실행한 이유는 이러한 평가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거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에게 본인이 평가한 내용을 읽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발표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첫 수업은 강의 인내가 주된 내용이었다. 첫 시간에 수업소개와 세계문학 읽기의 필요성, 평가 유형과 방법을 고시하였다. 즉 교재, 평가방법, 조별발표, 감상문쓰기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하였다. 별도의 고정된 교재 없이 필자가 매 시간 마련한 강의안을 배부하였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가의 전기적 생애 등을 중심내용으로 작성한 강의안이다.

평가 항목은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조별 발표, 작품 감상, 출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필고사의 유형은 서술식 문항과 단답형 문항을 혼합하였다. 이 수업의 주요활동이 세계문학의 ‘정독과 완독’이었기 때문에 읽은 후의 ‘감상문 쓰기’를 강조하였고, 단답형 문항에서도 완독을 확인하는 사소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작품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작품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선정된 고전 6편을 줄거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감상을 쓰는 것이다. 형식과 분량은 자유롭게 쓰도록 했는데 분량이 예상보다 많았다. ‘감상문’을 보면서 필자는 평가배점을 조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조별 발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조별 발표의 배점은 높이고, 개인별 감상문의 배점은 낮게 책정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출한 감상문을 보니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실한 글이었다.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 표 1 ]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강의 계획서

주별	강의 주제	강의 방식	강의 내용	
1	3월 3일	강의 소개	일반 강의	고전이란 무엇인가
2	10	문학과 사랑1	일반 강의	<폭풍의 언덕>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3	17	문학과 사랑2	발표	<폭풍의 언덕>에 나타난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이해
4	24	학과 답사		
5	31	문학과 욕망	강의 & 발표	<리어왕>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리어왕>에 나타난 ‘욕망’에 대한 이해
6	4월 7일	문학과 성장1	일반 강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7	14	문학과 성장2	발표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성장’의 양상과 의미
8	21	중간고사		
9	28	문학과 휴머니즘	발표	<페스트>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페스트>에 나타난 ‘인간애’의 의미
10	5월 5일	어린이날		<죄와 벌>을 열심히 읽읍시다~~~~!!!
11	12	문학과 자연 1	일반 강의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12	19	문학과 자연 2	발표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와 인간정신
13	26	문학과 영혼 1	일반 강의	<죄와벌>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14	6월 2일	문학과 영혼 2	발표	<죄와벌>에 나타난 ‘영혼’의 의미와 인간정신
15	9	강의 종합	talk talk	왜 지금,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16	16	기말고사		

문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학생들의 발표 수업에서 진행하였다. 이때, 학생들이 <현대소설론>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발표의 리포트는 거의 대부분 작가 소개, 작중인물의 성격, 공간의 의미, 갈등 파악으로 구성되었다. 문학교육이 분석위주의 교육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자료 활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관련 연구 논문 등의 활용이 다른 교과목보다 눈에 띄었다. 세계문학에 대한 작품분석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다.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의견보다 선행 연구자의 논의를 비판적 시선 없이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기존 연구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시각으로 신선한 문학적 해석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고 싶었다. 『죄와 벌』을 발표할 조원들이 발표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앞서 발표한 조들의 발표 내용이나 방식과 다른 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다. 예를 들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모의 재판’ 형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안전하거나 무난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발표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은 내용은 <페스트>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이끈 수업이다. 발표의 목차만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 목차

1. 사회적 배경
  - 1) 페스트
  - 2) 알제리 소개
  - 3) 1900년대 초반
2. 작가 소개
3. 카뮈의 사상
  - 1) 부조리
  - 2) 실존주의
  - 3) 아나키즘

- 4) 인간에
- 4. 줄거리
- 5. 작품 특징
  - 1) 작품 구성 방식과 문체
  - 2) 리외의 기록 vs 타투의 기록
  - 3) 공간의 의미
- 6. 주제 및 인물의 특성
  - 1) 주제
  - 2) 페스트의 의미
  - 3) 인물별 특징
- 7. 교육적 가치
- 8. 토론 및 질의 응답

4명으로 이루어진 조원들은 작품을 매우 정밀하게 읽었다. 1, 2장은 강의 의식 수업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발표 조에서는 작가의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5, 6장에서 주제와 인물, 공간의 특성을 공통적인 항목끼리 모아서 발표했다면 좀 더 깔끔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편소설의 다양한 작중인물의 특성을 카뮈의 사상적 측면과 연결하면서 내용을 살펴본 것은 매우 정밀하게 작품을 읽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중간고사 직후에 배정된 텍스트로서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어려운 내용이 생각한 학생들에게 이 발표조의 깊이 있는 분석과 페스트 관련 동영상 등은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가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의 주제	제9주 강의-『페스트』 발표 평가				
발표	내용의 독창성	구성의 논리성	작품 이해도	조원의 협동성	평가/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가 깔끔하고 한 눈에 잘 들어왔다.</li> <li>- &lt;페스트&gt;를 읽으면서 한번도 공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잡아낸 것이 놀라웠다.</li> <li>- &lt;페스트&gt;를 샌드아트로 만든 동영상을 보여줘서 흥미로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배경과 작가 카뮈의 삶과 연보를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li> <li>- 카뮈의 삶과 그의 작품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어서 이해가 쉬웠고, 구체적인 인물과 연계시켜 예를 들어주어서 구성의 논리성이 뛰어난 발표인 것 같다.</li> <li>- 어려운 설명마다 예시를 들어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다. 기 후 역시 작품에 연관되어 있음을 잡아낸 것이 대단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김명재)가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한 것 같았다. 스크립트나 ppt를 거의 보지 않고도 온전히 자신이 아는 것을 전달해 주는 기분이었다.</li> <li>- 페스트 발병 단계를 분석해서 알려준 점이 좋았다. 책을 읽을 땐 그냥 단순히 ‘페스트’라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지, 그 순서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초반에 각 조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어서 좋았다.</li> <li>- 발표자들끼리 중간중간 서로의 부분을 언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li> </ul>	A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로 위의 예시 글처럼 어려운 작품을 작가의 사상에 맞추어 인물의 특성, 공간의 특성 등으로 분석한 것에 관심을 보였고,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의 결과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또 다른 발표 내용인 <노인과 바다>도 흥미 있는 수업이었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노인과 바다>는 작품에 나타난 ‘상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일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물 상징주의 : 산티아고(실존인물 : 그레고리오 푸엔테스-헤밍웨이의 낚시친구이자 보트 ‘필라’호의 키잡이 어부)  
Santiago를 통해 나타난 기독교적 상징 : 헤밍웨이 작품 속 기독교 정신은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독실한 기독교 가정, 종교적인 마을(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깊게 새김. 훗날 작품의 아이디어와 소재를 성서에서 끌어냄으로써 기독교적 요소와 작품의 예술성을 긴밀하게 연결시킴.) 그러나 헤밍웨이와 산티아고 둘 다 기독교 신자는 아님. 이러한 기독교적 상징은 노인의 고난과 역경이 예수의 그것과 비교할 만큼 힘들고 극적이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상징적 수법.  
마놀린을 통해 나타난 우애의 정신 : 마놀린의 존재는 외롭고 쓸쓸한 산티아고를 유대의식과 상호의존의 세계로 안내함. 노인이 젊음을 동경하게 만들.
2. 동물 상징주의 : 청새치, 제비갈매기, 사자, 상어 등의 상징
3. 자연 상징주의 : 바다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유임.

<노인과 바다>를 발표한 조는 상징적 기법에 의해 이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노인과 바다>는 앞서 보았던 작품들과 비교할 때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조로운 사건을 지닌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 안에 나타난 인물이나 소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찾는 활동은 적절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현행 문학교과서에 실린 <노인과 바다>의 학습목표는 ‘노인과 바다’를 원작으로 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을 ‘다매체 시대의 문학 향유’ 부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소단원의 목표 설정은 타당하다. 그러나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더라도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상 능력이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 다매체 시대의 문학 향유  
 (단원 안내) 이 단원에서는 애니메이션 ‘노인과 바다’를 공부한다. 이를 통해 전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표현 방식과 아름다움 등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단원 목표) 이 작품은 헤밍웨이의 소설 해 보자.

(학습활동)

- 1 ㉠ 장면을 소설로 읽었을 때와 애니메이션으로 보았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 2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법의 효과가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을 골라 보자.

애니메이션 ‘노인과 바다’에는 ‘오일 페인팅(oil painting)’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유화 물감을 손가락에 묻혀서 각 장면을 하나의 유리판에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린 29,000여 장의 유화를 연속으로 촬영하고 고도의 컴퓨터 기술로 편집하여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으며, 상영 시간이 20분인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4년이 걸렸다. 이 유화 애니메이션에는 거친 질감이 잘 나타난 있으며, 특히 원작의 장엄한 느낌을 잘 재현해 내고 있다. 명암의 섬세한 변화와 여백미는 셀 애니메이션이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 3 ㉡ 장면에 표현된 ‘돛’의 모습이 소설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처럼 표현하여 거둔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노인은 돛대를 빼내고 돛을 감아서 묶었다. 그리고 나서 돛대를 어깨 위에 걸어 메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인과 바다>의 발표처럼 대학에서 수행한 세계문학 교육의 커리큘럼과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수록 작품이 일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교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아쉬움을 주었다. 필자가 미처 현행 문학교과서를 고려하지 못한 불찰이 드러났다.

이 발표조의 수업 진행을 보면서 들었던 또 다른 생각은 자료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10여 편에 해당하는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별 발표에 대한 순기능을 고민하였다.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이 많은 상징적 의미를 학생들 스스로 찾고, 분석하였는지 의문



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비단 이 발표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처럼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순수 생각으로만 제작된 보고서를 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정보를 찾아내는 그 자체도 일종의 능력이므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타할 수는 없다. 그러나 2차 자료에 너무 의존할 때 발생하는 역기능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수업에서 학생들과 논의를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필자의 준비 부족도 많이 드러났다. 필자가 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문학교과서를 미리 파악하였다면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좀 더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2012 고시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세계문학’이 수록되어 있다. 11개 교과서에 모두 16편이 실렸다(교과서는 가나다 순, 대표 저자만 기재함).

[ 표 3 ]

교과서	서명	작가	발표 연도	국가
두산동아 (김창원)	술라	토니 모리슨	1973	미국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1987	일본
	연금술사	파울루 코엘류	1988	브라질
미래엔 (윤여탁)	동물농장	조지 오웰	1945	영국
	아큐(Q) 정전	루쉰	1923	중국
비상(우한용)	해저 2만리	쥘 베른	1869	영국
비상교육 (한철우)	없음			
상문연구사 (김대용)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1862	프랑스
좋은책신사고 (이승원)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에리히 레마르크	1929	독일
	기억의 천재 푸네스	보르헤스	1944	아르헨티나
지학사 (권영민)	달과 6펜스	서머싯 몸	1919	영국
	1984	조지 오웰	1949	영국
창비(박종호)	없음			

교과서	서명	작가	발표 연도	국가
천재교과서 (정재찬)	어머니	막심 고리키	1906	러시아
	로디지아 발 기차	네이딘 고디머	1952	남아프리카 공화국
천재교육 (김윤식)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1952	미국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	존 세스카	1989	미국
해냄 에듀 (조정래)	토버 모리	사키	1904	영국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문학’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작가의 국적, 발표 연대, 형식 등이 폭넓게 수용되었다. 필자가 수업준비에 좀 더 철저했다면 현행 문학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을 것이다. 다음 수업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3.3. 학생들의 호응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앞서 살펴보았던 ‘발표 평가지’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평가지 뿐만 아니라 격주마다 작품 감상문이 있다. 감상문쓰기는 조원들과의 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작품 이해력, 감상 능력이 잘 드러난다.

#### ○ 재독을 한 학생들의 반응

1)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당황스러운 기분이 자주 들었다. 비극적인 결말이야 알았지만, 설마하니 리어 왕과 코델리아, 글로스터 백작 등 이렇게 많은 인물이 죽어 나갈 줄은 몰랐기에 더욱 그러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얇은 동화책 같은 느낌으로 읽었던 경험밖에 없었던지라 나에게 ‘리어 왕’은 굉장히 간략하고 왜곡된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코델리아는 내 기억보다 강단 있었고, 리어 왕은 더욱 다혈질에 나약한 이였다. 악역인 에드먼드에 게 오히려 더욱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다. 자신이 서자인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악함이 태생

임을 부르짖는 모습은 오히려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흥길동처럼 의적이 되어 사회를 개혁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현실적이며 공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에드먼드가 흥길동처럼 나름의 정당한 방법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했으면,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비극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이유정 학생).

2)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이 많이 두껍고 등장인물도 많고 심지어 인물들끼리 이름도 똑같은 경우도 있어서 초반에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먼저 대강의 줄거리와 인물들의 관계를 머릿속에 넣고려고 노력했다. 히스클리프가 이 책의 주된 인물이면서 악한 인물로 그려진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모질고 악독한 면모에 화도 나고 그에게 휘둘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며 답답함과 연민이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면 히스클리프도 처음부터 나쁜 인물은 아니었다. 단지 사랑하는 이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그의 자식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복수를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의 복수가 여러 명을 괴롭히고 희생시켰지만 그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가 죽음으로써 복수는 끝이 나고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결말이 아닐까 싶다. 소설의 전반적인 배경이나 분위기의 음산함과 비정상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사랑이 이 소설이 비극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글은 작년에 이 소설을 읽고 기억하기 위해 쓴 짧은 감상문이다. 약 8개월이 지난 후의 감상과 비교했을 때 히스클리프에 대해 느낀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책에 대해 느낀 감상과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들이 깊어진 것 같다. 감상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일지는 몰라도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소설에 대해 생각하게 된 점이 많아졌고, 전혀 몰랐던 점들(벨리의 의도적인 행동들이)에 눈에 띄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김다희 학생).

앞서 언급했던 정보 활용의 부정적 작용은 학생들의 개별 ‘감상문’을 보면서 많이 상쇄되었다. 감상문은 학생들 스스로의 생각을 드러낸 솔직한 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일한 책을 여러 번 읽어 보는 것, 즉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때마다 작품의 향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체득하는 것은 고전이 줄 수 있는 미덕이다. 이렇게 작품에 공감하거나 작품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문학의 기능은 다양하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즐거움 언어 사용법을 통한 가르침>을 중요한 기능으로 쳤지만 근대 이후에는 심미적 기능과 공동체적 삶의 특질을 표현하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었다.<sup>8)</sup> 학

생들의 감상문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드러났다.

○ ‘국어교사’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

폭풍의 언덕이 국어교육, 국어교사에게 시사하는 점

국어교사는 ‘캐시’처럼 활기를 불어넣을 줄 알아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라고 해서 항상 밝은 분위기일 수는 없다. 어떤 분위기, 어떤 절망적 상황도 받게 만들어야 한다. 도태된 학생, 어떤 처지에 있는 학생, 자신을 아무리 힘들게 하는 학생이라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폭풍의 언덕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 듯 학생과의 관계도 결국엔 행복으로 끝날 것이다.

감상

폭풍의 언덕을 읽으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인물들의 사랑 방식과 심리가 현재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질투하고, 오해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유치한 장난까지 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캐시가 린튼에게 자신을 사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은 소설 중 가장 사랑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잃을까 봐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이다. 둘만의 사랑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극중 인물들이 사랑을 한다. 소설에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세를 들러 와서 벨리의 이야기를 듣는 록우드조차도 잠깐 캐시의 외모에 마음을 빼앗긴다.

소설의 주가 되는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보다 아끼는 것을 넘어서(어쩌면 이 말은 상투적인 과장적 표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번도 경협해본 적도 없고 쉽게 접한 적 없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캐시가 “내가 히스클리프예요”라고 절규하던 장면은 온몸을 전율로 뒤덮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광기 어린 사랑보다 가슴을 울린 사랑은 소설 후반부에 나오는 헤어튼과 캐시의 사랑이었다. (...중략...) (손민혁 학생)

위의 학생이 제출한 6편의 감상문은 고른 수준을 지니고 있다. 재독에 대한 감상이든, 작품평을 하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분석하는 능력이 안정감을 주었다. 예시문처럼 ‘국어교사’의 입장을 유지하려는 태도도 잘 드러나고 있다.

평소 적극적인 학생들은 조별 발표 때 질문과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반면, 소극적인 학생들은 감상문에 예리한 비판이나 분석을 드러내고 있

8) 송무, 『문학교육의 ‘정전’ 논의-영미의 정전 논쟁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5호, 1997, 295면.

었다. ‘이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작품 분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학의 즐거움은 확실히 수업의 즐거움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 4. 결론

지금까지 ‘세계문학’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 수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학교육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고전교육’의 사례 중, 사범대학에서 수행한 강좌의 수업 후기에 대한 것이다. 대학 교양과목의 변화에 ‘교양읽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띈다.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도 이런 변화를 수용하여 <국어교사를 위한 고전읽기>를 2014년에 개설하였다.

이 강좌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안다.
- 고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문학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한다.

이러한 목표는 문학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세계의 다양한 문학을 통하여 문학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타자의 이해를 체득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수업 대상 작품은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카뮈의 「페스트」, 샬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 6편으로 선정하였다.

강의는 일반식 강의와 발표식 강의를 격주로 진행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작품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작가의 전기적 요소

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발표 수업에서는 분석내용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조가 발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발표 평가지’의 평가항목에 맞추어 수업의 피드백 내용을 작성한다. 평가항목은 발표 내용의 독창성, 발표구성의 논리성, 작품 이해도, 조원의 협동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의 확대이며, 깊이 있는 타자 이해의 첩경이었다. 학생들은 조별 발표 때 매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임하였다. 소극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감상문에서는 예리한 비판이나 분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학생들의 발표 수업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학의 즐거움은 수업의 즐거움으로 전이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선정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수업 목표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고려한 세계문학 교육을 염두에 두었으나, 실제 작품 선정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드러났다. 즉 텍스트 선정에서 서구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의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을 다루었다고 하기 어려웠다. 추후에는 제3세계의 문학이라든가, 재외 한국작가의 작품을 수용하여 다문화 시대를 반영한 타자의 삶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문학 장르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소설 장르 외에, 시, 희곡, 에세이 등의 장르로 확장하면 학생들에게 세계문학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작품 창작 시기도 고대, 중세, 현대 등의 균형 있는 분포를 갖는 것이 문학교육에 효율적이라고 본다.

셋째, 수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수의 일반식 강의에서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과의 영향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식 수업에서도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학을 비롯한 예술 방면의 수업은 학생들의 토론식 수업이 더 유익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 스스로 발견한 작품의 심미성과 작품

의 의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유의 차이와 설득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과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세계문학’ 교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비국어교사를 위한 세계문학이므로 실제 문학교과서에서는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활용한다면 논의거리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규진, 「다문화시대의 문학 정전(正典)」, 『독일언어문학』 제23집, 2004.
- 류수열 외, 『문학교육개론Ⅱ 실제편』, 역락, 2014.
- 박인기, 「문학교육과 문학 정전의 새로운 관계 맺기」, 『문학교육학』 제25호, 2008.
- 송 무, 「문학교육의 ‘정전’ 논의-영미의 정전 논쟁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5호, 1997.
- 유종호, 『과거라는 이름의 외국』, 현대문학, 2011.
- 유종호, 『문학은 끝나는가?』, 세창출판사, 2015.
- 조영일, 『세계문학의 구조』, 출판b, 2011.
- 정인모, 「교양교육과 고전 읽기」, 『독어교육』 제39집, 2007.
-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4.
-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 I 이론편』, 역락, 2014.
- 로버트 스콜스, 신지운 옮김, 「정전성과 텍스트성」, 『서강영문학』 제4집, 1992.



## Abstract

# World Literature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Kim, Mi-Young

This study is about comments on a course delivered in a college of education among cases of ‘classical education,’ which receives a lot of attention. Recently, among changes in university courses for general education, interest in ‘reading books of culture’ has stood ou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accepted such change and opened the course <Reading Classical literature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The aims of this course are as follows. ◦ Know the pleasure of reading classical literature. ◦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lassical literature. ◦ Understand others by rediscovering the perception of literature culture and history. These aims are to extend the functions of literature. That is, the aims ultimately help students acquire the understanding of others, improving their qualities as global citizens by rediscovering the perception of literature culture and history through various literature of the world.

Six literary works—*Wuthering Heights* by Emily Bronte, *King Lear* by William Shakespeare, *La Peste* by Albert Camus, *The Catcher in the Rye* by J. D. Salinger, *The Old Man and the Sea* by Ernest Hemingway and *Crime and Punishment* by Fyodor M. Dostoevsky—were selected as the works to be covered in the course.

As for classes delivered in the course, general classes and presentation-led classes were carried out every other week. General classe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works and the authors' biological factors. Students'

presentation-led classes were carried out in analysis and discussion. While presentation teams are making presentations, other students gave feedback on the presentations on presentation evaluation paper in accordance with evaluation items. Evaluation items were to examine the originality of presentation content, the logicity of presentation composition, understanding of works and cooperation among team members.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lasses was very high. Encountering world literature as well as Korean literature is to broaden experience and deepen understanding of others. While teams were giving presentations, students asked questions and discussed very aggressively. Even rather passive students made acute criticisms and analysis in their report. The saying "you can see as much as you know" has been proved by presentation classes by students. In addition, the pleasure of literature has spread to the pleasure of classes.

If there are any regrets about this study, it is that the works selected here were mostly Western literature. In accordance with increased awareness of multi-cultural ag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iterature of the Third World as well.

⊕ **Key Words** : Reading Classical literature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classical education, Western literature, Understand of the others, multi-cultural age